■ 올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다자녀 공제액 두배 늘려…셋째부턴 200만원

연금신탁·퇴직연금 등 1인당 400만원까지 공제

국세청, 통합 자료 출력 '간소화 서비스' 제공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각종 정산제도를 잘 파악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적지 않아 '세(稅)테크'라고도 불린다. 올해 연말정산제도의 달라지는 것과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을 것을 정리했다.

◇올해 달라지는 것=다자녀 공제금액 확대가 확대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자녀가 2명일 때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자녀가 3명이라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대상은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넓어졌다.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도 기부자가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종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소득의 10%가 한도다.

주택 월세입자가 매달 내는 월세금의 납입증명 서류가 줄어들었다. 종전에는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했다.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명세가 들어간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도 계속된다.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다. 체크카드는 25%까지 혜택을 받는다.

연금상품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은행 '연금신탁', 근로자가 추가 적립하는 퇴직연금(DC형)을 통틀어 1인당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분기별 납입한도액은 300만원이다.

◇지금이라도 체크해야 할 포인트=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하지만 금융상품 가입은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공제한도가 늘어나는 연금상품이 대표적이다. 분기별 최대 불입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입하더라도 혜택을 준다.

세법상 장애인은 중풍이나 암, 심장질환, 치매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주치의가 서명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은 의료비 지출 공제한도가 없다. 신용카드가 아닌 학원비,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의료비 등을 지로나 현금으로 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다"면서 "국세청은 1월 중순에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취합해 개인이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목포 설렁탕 전국서 제일 비싸다

9400원대로 평균보다 40% 높아…체감물가 최고

목포의 설렁탕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조사됐다. 다른 음식값도 서울 등 대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체감물가가 전국 최고치다.

27일 한국은행 목포본부의 '역내 지수물가와 체감물가 괴리 요인'이라는 분석 자료를 보면 설렁탕은 9400원대로 전국 평균 6700원보다 40% 비싸다.

짜장면, 냉면, 김치찌게, 칼국수 등 5개 음식의 평균 가격도 6500원대로 전국 평균 5500원에 비해 20% 높다고 밝혔다.

특히 낙지, 홍어, 갈치, 민어, 꽃게 등 지역 대표 음식인 '목포 5미(味)' 가격도 대체로 서울 등 대도시 등에 비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 식단의 주메뉴의 원료가 대부분 국내산인데다 풍성한 밑반찬이 제공되는 음식문화로 식재료 비용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은행 목포본부는 분석했다.

바다낚시 비용도 다른 곳보다 1인당 5만~15만원 비싸고, 이발·미용서비스 가격 상승률은 충주시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높다.

한국은행 목포본부 관계자는 "목포시 소비자 물가는 전국 평균(4.4%)보다 낮지만 체감물가가 높은 것은 비싼 외식 물가 때문이다"면서 "지자체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범 가격 책정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농협-맛드린 '로컬푸드 운동' 협약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와 서창농협(조합장 배인수)은 지난 25일 광주 풍금어린이공원에서 (주)맛드린 식품, 천지장례식장과 '로컬푸드 운동'협약을 체결했다.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농산물의 지역소비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농산물의 영양 및 신선도를 극대화하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며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운동이다. 천지장례식장과 (주)맛드림 식품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농산물의 식자재 사용을 더욱 확대해 지역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기동기자 song@

메이플스토리 1300만명 정보 유출

경찰, 서버 해킹 수사…이용자들 집단소송 추진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회원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넥슨은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백업 서버가 해킹돼 전체 회원 1800만명 중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넥슨은 이 사실을 지난 24일 확인했으며 25일 오후 5시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드러난 싸이월드·네이트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넥슨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계정의 ▲아이디 ▲이름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다.

게임 관련 거래는 결제대행사를 통하기 때문에 계좌번호·신용카드 정보·거래정보 등은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넥슨 측의 설명이다.

한편,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은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의 '넥슨 해킹' 인터넷카페(cafe.naver.com/hacknexon)에 모여 집단 소송을 검토·논의하고 있다.

이 카페의 회원 수는 27일 오후 7시 현재 35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카페 내부에 있는 '넥슨을 심판하자'는 내용의 서명운동 게시판에도 많은 회원이 동참했다. 또 과거 네이트·싸이월드 해킹과 관련한 인터넷카페(cafe.naver.com/hack-nate)도 공동대응을 결정하고, 넥슨 관련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배추·무 시장격리 10만t으로 늘어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예년에 비해 값이 크게 떨어진 김장 배추와 무의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추가로 6만5000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물량은 배추 5만t, 무 1만5000t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 23일까지 배추 3만t, 무 5000t을 사들여 폐기해 전체 시장격리물량은 10만t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배추 2000t을 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해 수매·저장한 다음 한파 등으로 공급량이 줄어들면 시장에 방출하기로 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유럽 변동성 확대 우려 여전

유통 등 내구재 투자 안정적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잠시 안정을 보이는 듯하던 유럽 주요 국가들의 국채수익률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주요국 증시도 다시 연저점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유럽사태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4일 열린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도 유로화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란 원칙론에만 합의했을뿐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유럽 재정 위기의 안전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증액 문제는 논의조차 못하는 모습이다. 당장 유로존 전역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EFSF 1조 유로로는 이제 명함도 내밀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유럽의 해결방안 논의 역시 유로본드와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로 옮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로존 내 미묘한 변화의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

첫째, 그동안 독일이 주장해왔던 대로 유로본드 발행에 앞서 유로존의 재정 통합을 우선 논의키로 했다는 점이다. 당장 유동성 위기를 잠재울 수는 없지만, 독일 주도의 근본적인 처방전 마련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던 프랑스가 ECB의 독립성을 존중하기로 한발 물러섰다는 점이다. 고통분담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독일의 의도가 일부 먹히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ECB가 대출만기 연장이나 단기신용 공여 등의 형태를 통해 유럽 은행권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한계에 이른 국채매입 외에 은행권의 유동성 부족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폄하할 필요는 없다. 물론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 사태가 일보의 전진도 못하고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매듭을 일부 풀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유럽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주식시장도 예단보단 대응 영역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코스피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계단식 하락패턴을 그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주요 변곡점 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탄력적 대응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외증시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매도세가 여전하다는 점이 부담이긴 하지만 코스피 1700대 중반 정도에서는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가 급락시 꾸준하게 유입되는 개인·연기금·국내주식형펀드 등의 국내자금과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고, 주당순이익(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반도체, 유틸리티, 유통, 의류/내구재 업종 주식에만 집중해야 할 것이다.

〈jpark@shinhan.com〉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